

적인 하나의 언어가 아닙니다. 살아있는 어느 것보다도 귀한 생명이요, 능력이요, 힘이요, 에너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제일 아름다운 언어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엄마, 아빠, 그리고 감사라고 합니다. 감사하는 개인, 민족, 나라는 잘 됩니다.

미국 TV에서 성공한 사람을 수천 명을 인터뷰를 했는데, 공통적인 것은 감사하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카터 대통령이 90회 생일에 세 가지 감사를 했습니다. 첫째 예수님을 믿는 것, 두 번째 집사된 것, 그리고 감사함으로 좋은 일 하는 것에 감사를 했습니다. 대통령 끝나고 나서 고향에 가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세계에 가장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집을 짓고 목수가 되어 살았으니 얼마나 행복합니까? 작년에 카터 대통령이 암에 걸려서 죽는 다라고 전 세계 앞에 뉴스 앞에 발표했는데 석 달 만에 다시 발표했습니다. 암이 없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이것은 현대의학이나 누구도 풀 수가 없습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감사하면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날 대한민국은 감사를 잃어버렸습니다. 나라가 폭발하고, 원망하고, 어린 아이로부터 온 나라가 짜증내고, 가정이 다 무너지고, 교회까지 감사가 없습니다. 하나를 불평하면 열 가지의 원망거리가 따라오고, 하나를 감사하면 열 가지의 축복거리가 따라옵니다. 감사는 불평을 멈추는 것이며, 기적을 창조하는 은총의 도구이며, 감사는 영혼의 보약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 24시간, 한평생 행복하게 건강하게 복되게 살아갑니다. 감사하는 집에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많습니다. 감사하는 집에는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풍성한 은혜를 부어주시니 자자손손 영원히 잘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감사하는 가정, 은혜에 감사하며 행복하게 살아가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 도 인 도 자
 찬 송 446, 559, 563장(중 택1) 다 같 이
 주 기 도 문 다 같 이

* 그리스도인이 조상의 은덕에 감사하는 것은 귀중한 덕목입니다. 그러나 화려하지 않고 겸손하게 드러야하며, 무엇보다도 믿음의 도리에 어긋나는 일은 삼가야 합니다.

2017 중추절 감사예배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창12:3)

예배순서

중추절 감사예배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우리의 생명을 지켜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는 예배입니다.

목 도 시 106:1(말씀을 인도자가 낭독) 다 같 이

할렐루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찬 송 588, 589, 590장(중 택1) 다 같 이

성 시 교 독 다 같 이

인도자: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회 중: 기쁨으로 여호위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인도자: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회 중: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인도자: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회 중: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다같이: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 아 멘 -

신 앙 고 백 다 같 이

기 도 가 족 중

하나님 아버지 금년에도 따스한 햇빛과 단비를 주셔서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중추절 아
 침, 하나님의 무한하신 은혜에 감사하며 이 예배를 드립니다.

공활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안에 감사 없는 마음들, 감사에 인
 색한 마음들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와 말씀을
 통하여 감사의 사람으로 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며 은혜의 강이 우리 가슴
 마다 넘치게 하시고,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보혈의 은혜가
 우리 안에 샘처럼 솟어나게 하옵소서.

주님께 받은 사랑과 풍성한 은혜를 이웃에게 나누는 감사의 가정, 축복의 가
 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옷자락 잡고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주시고 감사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2017

- 아 멘 -

성 경 봉 독 시 116:12-14, 고후 9:15 인 도 자

시 116:12-14

12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13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14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고후 9:15

15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말 씀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다 같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때 빈손
 들고 와서 일평생을 값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품안에서 살아갑니다. 그
 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
 이 인간의 목적이고,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
 사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들으면
 서 은혜와 복을 받아 그 은혜로 이 세상을 살면서 감사의 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가는 삶이 가장 건강한 민족, 건강한
 가정, 건강한 개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리가 말씀
 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오늘날 세
 계 최고의 위대한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미국은 청교도 102명이 미국으로 건너가서 감사의 터 위에 나라를
 세워서 그 나라를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감사는 어떤 감상